

# 교회 밖 교육, 교육문화를 진단하다

문화는 변화와 관련하여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문화는 변화에 민감하다. 그 속도와 폭은 다양하지만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문화의 근저에는 바위처럼 버티고 있는 또 다른 문화가 있다. 모든 문화에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뚜렷한 세계관에 기초하여 오랫동안 전통사회를 유지해 오다가 급격하게 근대화과 세계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의 경우 이런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지난 백여 년 동안 경험한 서구화, 피식민화, 냉전 이데올로기, 경제적 근대화, 정치적 변화, 기술의 선진화 그리고 세계화 등의 격동은 한국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왔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의식 저편에는 여전히 깊게 뿌리내린 오래된 세계관이 있고 그것은 다양한 문화의 변화들과 결합하며 한국 사회의 특성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의 교육문화도 마찬가지이다. 교육 방법, 교육 공학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교육제도나 교육과정도 수없이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나 세계관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는 미지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그것이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교육적 성취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한국 교육문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대학, 심지어 소위 일류 대학에 들어가도 사회적 성공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 같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사회적으로도 성공한다는 말은 한국 사회가 한참 경제발전을 이루어 가고 개발의 도상에 있으면서 계층구조가 형성되어 가던 때에나 가능한 것이었다. 현재 한국의 계층구조는 어느 정도 굳어졌고 더 이상 “좋은 대학”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과 성공을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사회에서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를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수준이 된다는 사람들이 모이면 “몇 학번이세요?” 또는 “전공이 뭐세요?” 이런 질문들을 한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졸업장이 더 이상 물리적인 성공을 가져다주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막강한 상징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학졸업장”을 위한 교육으로부터 파생되는 한국 교육의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우선 학교교육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안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배우는 과정을 누리고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단순히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학교는 마치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잠시 지나가는 길처럼 되어 버렸다. 그 길 위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가다 보면 그 길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되고 길 위에서의 시간도 큰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학교에 다니는 시간이 매우 소모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안에서의 관계들 특히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도구적 의미를 갖는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라기보다 각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해 관계에 따라 교사의 권위는 무너지고 인격적인 소통도 어려워진다. 교사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입시와 대학졸업장을 위한 교육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나누게 된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갖게 되고 서로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이게 되면서, 학교에서의 관계들이 이미 사회의 축소판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왕따나 일진 등의 현상은 몇몇 아이들의 특성이나 부족한 부모들만의 잘못이 아니다. 대학졸업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 교육 문화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교육적 성공, 학벌 등에 집착하는 현상을 강창동이라는 교육학자는 그의 책 『한국의 교육문화(2002)』에서 “교육도착증”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 이런 교육문화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계관은 마치 급류 아래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다.

한국 교육문화의 근간에 있는 세계관은 매우 복잡적이다. 그것은 오랜 전통사회와 빠른 근대화의 영향이 뒤섞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세계관은 무속, 불교, 유교 등으로부터 형성되어 왔다. 그중에서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한



**이숙경** 이화여자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교육학 전공,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로 1992년부터 지금까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교육과 문화이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학교교육(공저)』 등이 있다.

국의 교육을 주도해온 유교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유교적인 자아실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봉영 교수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1)(1994)』에서 유교적인 한국 사회에서의 자아실현인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어떻게 입신출세(立身出世)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입신양명의 본래적 의미는 단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내'가 몸을 닦고 덕을 세워 사람의 도리를 행함으로써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 결과 미래의 역사에 이름을 날리고 이로써 부모와 조상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근대화과정 속에서 입신양명이 입신출세로 변질된 것이다. 출세란 남보다 뛰어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인격의 뛰어남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물, 즉 재력, 권력, 학력, 능력 등을 획득하고 소유함으로써 이룩하는 것이다. 결국 출세는 철저히 힘의 논리에 기초하며 결과주의와 경쟁을 부추긴다. 입신출세라는 개인주의화된 또는 가족 이기주의화된 삶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많은 병리적 현상들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의 본질도 왜곡시켰다.

출세 즉 성공에 대한 추구가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을 지배해 왔고 교육은 그 도구가 되었다. 더욱이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왔다. 교육은 이런 가치관을 심어 주면서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왜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것은 비생산적이거나 무능하거나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졌다. 경제적으로 나아가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 주었다.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발전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사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

교육이 물질적으로 잘 살고 힘을 기르기 위한 장치여서 안 된다. 즉 성공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른 방향성이 없는 교육은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바르게 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무엇이 가장 바른 길인지,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지, 우리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

런 의미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교육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의 도구로 여겨지게 된 것은 교육의 본질에 매우 큰 손실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모든 교육문화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오래 묶여 있으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교육문화를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런 교육문화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상 교회 밖과 교회 안의 문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근대 교육 초기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교회 밖으로 쏟아져 나갔지만, 지금은 밀려오는 교회 밖 문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 밖 문화들이 혼재해 있다. 성공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70년대 한국 사회가 이룩한 성공 신화의 중심에는 사실상 교회가 있었다. 교회는 변영의 신학을 가르치며 성공 지향의 세계관을 오히려 격려해 온 경향이 있다. 물론 기독교인 개인도 성공 지향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런 문화는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교회 밖 교육문화의 변화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회 밖 문화에 대한 성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바위 덩어리같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때로는 알아채기조차 쉽지 않은 성공 지향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그것을 벗어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그 영향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의식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즉 기독교인의 삶에서 성공과 경쟁에 대한 추구가 아닌 섬김과 나눔, 겸손과 자족의 가치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들 속에서 실천되고 표현될 때 교회 밖 문화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교육의 변화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